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18. 5.

국토교통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3
III.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4
IV. 좋은 일자리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	5
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 마련	5
2. 우리의 지역과 삶을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조성 ..	10
3.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8
4. 국토교통 산업 근로여건 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23
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 육성	26
V. 이행방안	30

I. 추진배경

1. 일자리 상황

- (일자리 중요성) 좋은 일자리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
 - * 경제 전문가의 39%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17.7, KDI)
 - (실업문제 장기화) 실업률이 지속 상승('13년 3.1% → '18.1/4 4.3%)하는 가운데, 임금격차 증가* 등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심화
 - * (예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 ('04년) 62% → ('17년) 55%
 -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 동기대비 소폭 개선('18.1/4 10.0%, △0.7%p) 되었으나, 전체 실업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중
-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2. 정부의 노력

- 「일자리 5년 로드맵」 수립(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17.10)
 - ①일자리 인프라 구축, ②일자리 창출, ③일자리 질 개선, ④맞춤형 일자리 지원 4개 분야에 대해 10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과제 선정
 - * 국토부 관련 도시재생, 건설산업 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 15개 세부과제
-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18.3)
 - ①취업청년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②창업활성화, ③취업기회 창출, ④역량강화의 4대 중점추진과제와 구조적대응 방안 확립
 - * 국토부 관련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드론 시범사업 등 포함
- ▶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 수립 추진
 - 일자리 5년 로드맵, 청년일자리 대책과 연계하여 주택·도시·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수단을 활용한 일자리 대책 마련 추진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현장소통 노력>

- 학계, 노동계 등 민간전문가와 ‘국토교통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17.12), 주택·도시·건설·교통 등 6개 분과를 운영하며 대책을 발굴하는 한편,
 -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보완 추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17.12.12, 제4차 일자리위원회)



◆ 대책개요

- (임금보장 강화)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 (근로환경 개선)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등
- (숙련인력 확보) 교육훈련 강화, 불법 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 강화 등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방문('18.3.2)



◆ 방문현장 개요

-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정('14.2)
- 최초의 마이스터고로서 '16.3월 개교

◆ 현장의 목소리

- 산·학·관 채용협정 MOU 등 일자리 매칭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18.3.13)



※ 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청년, 청년창업자 등 참여희망자 31명 참석

◆ 현장의 목소리

- 건설·물류 일자리의 여건과 인식 개선 필요
- 해외건설·항공정비 등 여성차별 해소 필요
-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 국토교통 인턴십 확대 및 체계화 필요

강호항공고등학교 방문('18.3.16)



◆ 방문현장 개요

- 국토교통부 재정지원('12~'17년, 4.6억원)
- 항공특성화고 지정('15.2월)

◆ 현장의 목소리

- 고졸정비사에 대한 취업연계 강화
- 특성화고 재정지원 지속 필요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기준 완화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① 인프라 부처로서 일자리 기반 조성

- 국토교통부는 주택, 도시, 교통 등을 담당하는 인프라 부처로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공간적인 기반 조성*에 역할 특화

* 공동주택, 산업단지·물류단지 등 경제거점 및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 단순한 근로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운영·관리와 관련 서비스 분야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

* (인천공항 T2, '18.1월 개항) 시설관리·운영 및 편의시설 등 8,700개 일자리 창출

② 고용규모가 큰 산업 多數 보유

- 건설, 운수, 부동산업 등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5.4%인 408만명('17)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

*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도 10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 185만명의 5.4% 수준

- 특히, 스마트시티·드론·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부문의 제도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충분

- 또한 공공임대주택 플랫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보유

③ 국토교통 일자리의 한계

-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 상 비정규직*이 많고 높은 노동강도와 산재율 등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기 어려움

* 초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 : 32.8% ↔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 : 51.9%

- 택시·버스·물류 등의 운송업도 지속적인 저임금 구조(산업 평균의 50~60% 수준)와 업체의 영세성, 사고위험 등으로 구직자 기피 경향

- ◆ 충분한 인프라 공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낙후된 근로여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 규제혁신, 인재양성을 통한 新산업 육성에도 정책역량 집중 필요

Ⅲ.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목 표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추진방안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

일자리 기반 조성

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 (주거활용)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급, 공공임대주택 상가 임대전환
- ② (지역창업) 도시재생 연계 창업공간 창출 및 전통시장 등 지역시설 활용
- ③ (공공지원) LH, 교통안전공단, 수자원공사, 건기연 등 스타트업 지원
- ④ (SOC활용)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와 철도역사, 공항 등에 창업매장 제공

2. 우리 지역과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① (도시재생) 지역청년 창업공간 마련, 예비사회적기업 확산, 지역일자리 창출 등
- ② (경제거점 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창업 친화형으로 조성
- ③ (혁신일자리)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의 인프라 활용 일자리 창출
- ④ (사회적일자리) 공공임대 서비스,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 ⑤ (청년주거) 청년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 안정적 창업·취업 기반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3. 국토교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① (건설) 학업과 취업의 연계강화,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
- ② (안전)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 ③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리츠 활성화 지원
- ④ (항공) 조종사 先선발後교육, 항공정비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 취업
- ⑤ (공공) 산하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일자리 나눔 추진

4.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① (건설) 등급제 도입 등 건설기능인 직업전망제시, 임금보장·복지확대 등
- ② (버스) 휴게·안전시설 확충 등 버스운행 안전성 제고
- ③ (택배)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통한 업무량 감축, 근로여건 개선 등
- ④ (공공)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조속 추진

新산업 육성

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① 스마트시티 ② 드론 ③ 자율자동차 ④ 新교통·물류서비스 등 적극 추진

IV.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

1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

약속 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택과 SOC를 창업공간으로 再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용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창업 인큐베이팅도 병행

가. 주거 인프라를 창업공간으로 활용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 (창업지원주택) 창업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전시·개발 등 창업 지원시설을 결합하여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공급(시세 72% 임대)

* 판교, 용인, 창원, 부산, 광주, 대구, 의왕, 인천 등에 1,526호 건설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주택과 전략산업 지원시설을 결합하여 저렴하게 공급(시세 72% 임대)

*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부산) 항만물류, 관광, (광주) 광산업,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등

⇒ '22년까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 공급, 일자리 5,000개 창출

□ 공공임대 희망상가 공급

- 기존에 민간에 분양하던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
 - 신규공급 상가의 60~80% 수준을 청년·사회적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임대(시세 50~80%)하는 공공지원형 상가로 전환

* '18년에는 약 110호 이상을 공급하고 '22년까지 연 80호 공급

⇒ '22년까지 희망상가 430호 공급, 일자리 1,290개 창출(1호당 3명)

나.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창업공간 조성

□ 창업지원형 어울림플랫폼 및 공공임대상가 조성

- 도시재생 지역에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탑재한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고 시세 50%이하로 창업공간 임대 지원(주택도시기금 활용)

* 도시재생의 활력을 견인하는 복합 앵커시설로서 연 20개소 설치 목표

- ▶ (창업지원형)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전문기관이 입주하여 통합지원
- ▶ (청소년복지형) 청소년상담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허브
- ▶ (문화생활형) 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재단 등이 입주하는 지역주민 문화거점

-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영세상인 포함)에게 최대 10년 동안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 공급

⇒ '22년까지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각 100곳 조성, 일자리 2,900개 창출

□ 첨단산업 기반 재생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

- 도시재생 지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력 산업시설과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첨단산업공간을 매년 평균 3곳 조성

- 주택도시기금 용자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첨단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스타트업 등에게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

* 교육·연구·업무·금융·정부 유관기관 등이 집적되어 종합적 창업지원

⇒ '22년까지 첨단창업지원센터 15곳 조성, 일자리 300개 창출

□ 지역대학과 전통시장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 대학이 주도하고 청년,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대학 인근을 지역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를 구성하여 기숙사 등 주거확충, 청년 창업지원공간·주민거점시설 조성

- 중기부와 함께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상권 활성화 연계형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여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청년몰 조성

⇒ '22년까지 지역공헌센터, 청년몰 등 20곳 조성, 일자리 600개 창출

다. 혁신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확대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LH공사 지원)

- 동탄2 신도시에 창업·주거·매장 등이 결합된 스마트시티 개발 스타트업 대상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20년, 최대 200개 스타트업 입주)

* 창업·주거·상업공간 등이 결합된 스타트업 지원시설

- 사무공간과 3D프린터 등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며, 창업 교육·경영 컨설팅 등 **창업프로그램** 운영, 성과점검 후 **확산**(8곳 이상, 중장기)

<동탄2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현황>



▶(위 치) 동탄 2 테크노밸리

▶(시설계획) 창업공간*, 창업지원주택, 창업매장, 문화·예술공간, 지원시설 등

*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사무실·회의실 등 도입

▶(추진계획) '18년상 착공, '19년下 준공

□ 공간정보 스타트업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지원)

-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활성화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실제 창업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강화**

- 엔젤투자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준비-창업-도약 쏙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마련**(매년 10개 기업 지원)

- 창업가들에게 개발공간, 사무실 등으로 활용가능한 **공유오피스**를 제공(현재 20개社 이용중)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 LX 공간드림센터 : 1단계 서울센터('17,12), 2단계 세종센터('19), 3단계 전주센터('20)

- (클라우드 서비스)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사업화시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무상 제공**하여 창업부담 경감

- '18년부터 50개社가 활용 가능한 규모의 공간정보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간정보 클라우드 센터** 건립(LX, ~'20)

□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교통안전공단 지원)

- 자율차 테스트베드 K-City('18년 말 완공예정)와 연계하여 연구환경·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지원·육성 방안 마련
 - 기술개발·실증, 기업 간 연계·협력 유도, 안전인증 지원, 기술컨설팅 등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검토
- * 이를 위해 K-City와 연계된 데이터 분석실, 차량정비고 등 지원공간 구축 검토
- 공공·민간의 자율차 주행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18.12, 교통공단)도 병행하여 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지원

□ 건설新기술 스타트업 (건설기술연구원 지원)

- 건설신기술*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연구원(일산)에 창업지원허브를 설치('18.5)하여, 사내·외 스타트업 육성
- * 例 : 자동화 장비, BIM 기반 3차원 설계, 드론활용 측량·공정관리 기술 등
- 창업신기술의 시험과 실증을 위해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스마트건설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19~)
- * 창업전문가 과정, 계약·금융 등 사업관리, 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 물산업 스타트업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 수자원공사 연구원(대전) 등에 K-water Startup Hub를 구축하여 사내·외 스타트업에 창업공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수공 연구원('17년), 수공 본사 사옥('18년), 판교 수도부지('19년)
- 신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댐·수도 등 111개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수자원공사 전문인력을 매칭하여 기술컨설팅 제공

⇒ '22년까지 혁신스타트업 대상으로 555개 기업*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1,665개 창출

* 스마트시티(LH) 200개, 공간정보(LX) 50개, 자율자동차(교통안전공단) 15개, 건설신기술(건설기술연구원) 150개, 물산업(한국수자원공사) 140개

라. 사회기반시설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

□ 고속도로 활용 소규모 청년창업 지원

- (청년휴게소) 신규 휴게소 중심으로 청년CEO Mall을 조성하고 기존 휴게소도 공모*를 통해 청년매장 입점을 지속 확대('18~)

* 단순 먹거리 뿐만 아니라 고품질 악세사리, 공예품 등 트렌디한 창업 유도

- 초기 6개월 임대료 감면하고, 전문가 컨설팅(年 2회), 성공한 선배 창업자가 참여하는 창업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성공창업 견인

- (푸드트럭)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통행량이 많고 인근 휴게소가 없는 高수요 졸음쉼터 중심으로 확대('18~)

- 주차면수 확대, 화장실·가로등·파고라 보강 등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푸드트럭 임대료 면제(6개월), 교육·홍보 등 지원책도 병행

*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17.6월)』에 맞춰 '20년까지 졸음쉼터 175개소의 진출입로 연장 및 이용량이 많은 51개소의 주차장 확장으로 안전성 향상

⇒ '22년까지 청년매장 41호*, 푸드트럭 37대**, 일자리 230개 창출

* 휴게소 청년매장: ('18.1) 79개 → ('22) 120개 / 푸드트럭 : ('17) 13대 → ('22) 50대

□ 철도·공항시설 활용 창업 지원

- (철도) 철도역사 매장을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임대하고 인테리어비용·보증금(최대 1천만원), 홍보 등 컨설팅 지원('18~)

- (공항) 공항 특성을 감안, 해외진출 유망 스타트업이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팝업매장 운영('18~)

* (사례) 팝콘·아이스크림을 주력으로 하는 '스윗몬스터' ☞ 해외 5개국 진출

⇒ '22년까지 철도매장 15호, 공항매장 7호 지원, 일자리 60개 창출

◆ 다양한 창업공간을 예비창업가가 쉽게 찾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공간 DB”(중기부, '19년부터 서비스 예정)와 연계 추진

약속 2. 우리의 지역과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을 고용 창출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창업친화적 산단조성 및 지역개발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유도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 '22년까지 연평균 약 9.9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 매년 100여 곳의 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일자리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용

*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22년까지 200곳으로 확대

⇒ '22년까지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12,500명 양성(연 2,500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1,200개 창출

* 도시재생지원센터 평균 인력 5.6명 기준 (1,200명) = (200곳 증가) × (6명)

□ 도시재생 창업 지원

- 도시재생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화 비용, 컨설팅, 네트워크 조성 등을 지원하여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매년 50개 이상 지정하여 교육·컨설팅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신청(3~4월) 및 지정(5월)

** 기금융자를 위한 HUG 심사 시 가점부여(2점) 및 융자한도상향(사업비의 70%→80%)

-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비용을 건당 500만원 지원하고, 낮은 보증료율(0.5%이하)로 HUG 보증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도입

- 지역자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확산을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창업자 간 교류·소통 지원을 통해 '피어(Peer) 컨설팅' 활성화

⇒ '22년까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250개를 지정·지원하고,
일자리 1,250개 창출

- **모태펀드***(중기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지역 내 경제조직**(청년 창업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검토

* 개별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하위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중기부·환경부·고용부·교육부·문화부·특허청 등에서 자체계정으로 운영 중

*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사회공헌활동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지원

- **클라우드 펀딩** 경진대회를 통해 민간 창업기업 등의 펀딩 추진 비용을 지원하고 **홍보·기금*** 지원 등 **후속성장** 지원

* LH 사회공헌기금('18년 150억 규모)을 활용하여 청년·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 **(‘터 새로이’ 사업)** 청년 건축가·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업체를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의 사업자로 지정하여 자생적인 회사로 육성**

* 지자체는 터새로이 사업 희망 주민을 선정하여 비용 일부 보조 및 주택도시 기금 저리융자를 시행하고, 터새로이 사업자를 통해 사업시행

-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주민·청년들이 점 단위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등 **경제조직**으로 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 1곳 당 국비 최대 2억 지원(지자체 매칭 50%), 50곳 수준 지원('18년)

- **(마을관리 협동조합)**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관리하는 협동조합** 설립(年 20곳 이상)

< 마을관리 협동조합(개요) >

▶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출자금, 마을상점·공공 임대주택 관리 등 수익사업의 이익을 통해 운영

▶ 조합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조합원비를 납부함으로써, 청소서비스 등 노후주거지에 부족한 각종 서비스* 향유

* 주택 공용부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집하관리, 이면주차 관리, 집수리 등

⇒ '22년까지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 지정,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추진 검토, 일자리 2,100개* 창출

* 터새로이 800개, 소규모 재생사업 1,000개, 마을관리 협동조합 300개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경로 (사례 중심) > —

① 시민기업 활용모델

- 지자체에서 시민기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기업은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취약계층 채용 등)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

< 성남 시민기업 >



2012년 성남 시민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능직 공무원 및 미화원 41명이 시민기업을 창업하여 청소 및 폐기물 관련 사업 위탁수행,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상향

② 사회적기업 육성·운영 모델

- 도시재생 지역 내 업사이클링, 공공서비스 운영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모어댄(MORE THAN)' >



창업서바이벌 TV 프로그램 '도전! K-스타트업'을 통해 창업, 폐자동차의 가죽시트나 안전벨트 등의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가방과 액세서리 제조

③ 지역상권 활성화 모델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 창원(마산) 부림시장 >



부림시장 내 빈 점포 47개소를 (사)창원도시재생신탁 회사에 무상 신탁하고, 창원시에서 내부 리모델링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여 '추억의 상가'로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④ 청년창업지원모델

- 스마트도시 등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청년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양시의 4차 산업단지 조성 >



항공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드론앵커센터 및 드론 관련 청년창업 지원시설의 메카로 육성하여 기존의 관련 업체와 항공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술을 개발('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거점 조성

□ 창업친화적 도시첨단복합산단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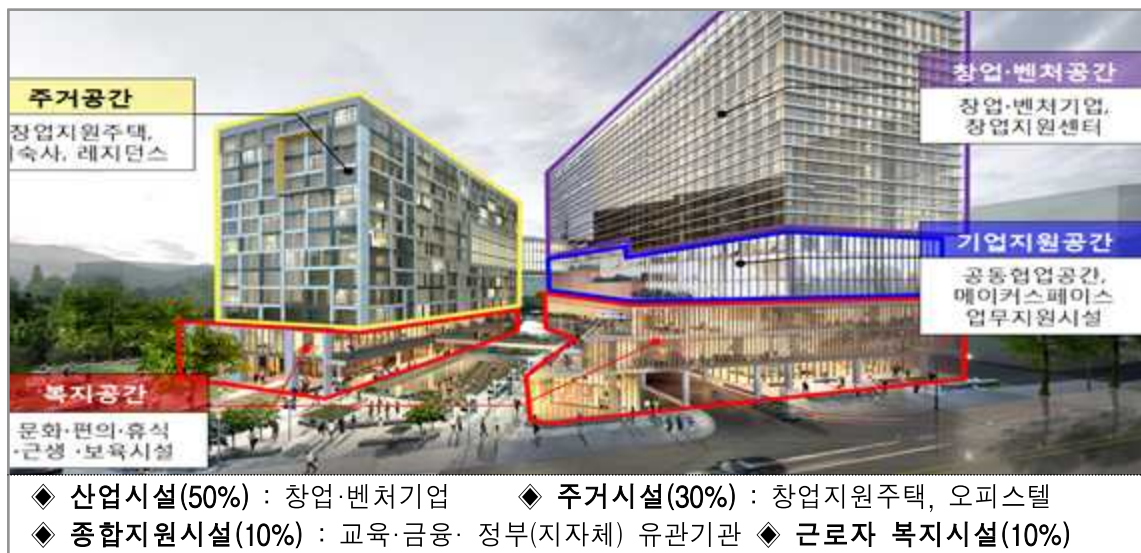
- 창업인력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성장센터***(공공임대창업 공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스타트업 육성

* (사례) 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 : 창업지원기관 9개, 189개 기업입주, 1,088명 근무중

** 기술사업화, 공공구매, 해외진출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결집

- 1층을 개방형 카페로 조성하여 창업자·투자자·기업의 교류를 강화하고, 스마트시티·녹색건축 요소 적용으로 차별화된 공간 조성
- 기업의 창업연차에 따라 주변 시세의 20~80% 수준으로 임대하고, 메이커스페이스·공용Lab, 무료 보안WiFi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혁신성장센터 공간구성(안) >



⇒ 혁신성장센터 3개소(300개 기업 입주) 설치, 일자리 1,800개 창출

* 광주, 대구, 인천, 순천, 제주 등을 대상으로 검토(지자체와 협의 중)

□ 물류단지 신설 및 리모델링

- 강릉, 안성 등에 물류단지 5개소(125만 m^2)를 신설하고 노후한 양천 물류단지(9만 m^2)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 추진('20~)

* 물류·유통시설 뿐만 아니라 사무·숙박 등 지원시설까지 집약

⇒ 물류단지 125만 m^2 조성으로 일자리 7,625개 창출(61개/1만 m^2)

다. 지역개발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 시즌2)

- (지역청년 채용)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18년 18%에서 '22년 30% 이상 달성토록 채용비율 단계적 확대

-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고,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의 직무·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대학생 등의 취업경쟁력 강화

** 교육부와 협업하여 지역선도대학과 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사업 추진('18년 5개 50억)

⇒ '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8,400개 창출

- (시즌2 기반조성)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단계적 설립*

* '19년 중으로 1~2개 재단 우선 출범 → '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로 확산

-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기업유치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

⇒ 혁신도시별 스타트업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600개 창출

* 혁신도시 10곳 × 10개 창업기업 × 기업당 평균 6명 고용

- (정주인프라 확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육시설(어린이집), 의료시설(종합병원 유치, 119안전센터) 신설 및 운영인력 채용

* '20년까지 어린이집 2개소 신설, 종합병원 5개소 유치

⇒ 어린이집, 종합병원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2,000개 창출

□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특화

- 새만금개발공사('18.9월 설립 예정) 주도로 선도 매립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도시 조성
-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연구기관 집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을 지역발전 재원(예: 지역대학 연계 R&D 등)으로 활용

*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17.12)」의 대표 프로젝트로 육성

-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하고,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을 통해 기업유치 촉진



< 새만금 용지별 이용계획 >

- ① 산업연구(41.7km²): 첨단산업 유치
- ② 국제협력(52.0km²): 국가별 경험특구 개발 검토
- ③ 관광레저(36.8km²): 휴양시설 연계 관광거점
- ④ 농생명(94.3km²): 첨단농업 육성
- ⑤ 환경생태(42.0km²): 생태환경 보전 기능
- ⑥ 배후도시(10.0km²): 주거 거점 기능

□ 행복도시 內 세종테크밸리 조성

- 주거·생활 인프라 중심의 행복도시에 혁신창업공간(공공임대('18.12), 민간분양('20.10))을 설치하여 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 자족기능 강화
- IT·BT 분야의 첨단 기업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인근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 경쟁력 제고

⇒ '20년까지 첨단기업·스타트업 입주완료 시 일자리 3,520개 창출

* 현재 3차 분양(13만m², 40%)을 통해 43개 기업, 2,650개 일자리 창출, 단지 준공('20년) 이후 입주 완료 시 총 57개 기업, 3,520개 일자리 추가창출 가능



< 산·학·연 클러스터 개요 >

- ▶ 세종테크밸리 : 리서치코어, 벤처파크 등 BT·IT 기업 입주 (리서치파크의 연구기관과 연계 성장)
- ▶ 창조형 캠퍼스 : 교육, 연구, 창업보육 등
- ▶ 캠퍼스 타운 : 상업·문화지역

라. 임대주택 플랫폼 활용 일자리 창출

□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강화

- 100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생활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가사돌봄, 도서관* 등의 생활서비스와 복지관, 어린이집, 상담센터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확산

* (무지개도서관)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의무설치 중으로 순회사서 운영

⇒ '22년까지 시니어사원 1,000명, 순회사서 12명, 상담센터 145명, 실버택배 52명, 복지관 774명, 어린이집 988명, 임대주택관리소 5,744명 등 공공임대 주거서비스 관련 일자리 9,337개 창출

□ 민간 주도 사회임대주택 공급·운영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18년 사회주택 1,100호 착공(협동조합형 1,030호, 토지임대부 70호) 및 LH 매입 100호 목표

- 사회임대주택이 확대·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LH·지자체를 중심으로 신규부지 발굴 추진
- LH 매입임대의 운영을 위탁('18년 100호)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

⇒ '22년까지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일자리 20개 창출 (60호당 1명)

□ 취약계층(주거지원대상) 복지 지원

-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지원* 대상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금 성격의 재정지원 추진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거주자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 등 지원

- LH 등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여 75개 사회복지기관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LH가 약 3억원을 출연하고, 타 기관의 후원을 유도하여 출연금 지속 확대 추진

마. 청년주거 지원으로 안정적 창업·취업기반 마련

□ 청년주택 공급확대

-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5년간 행복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총 13만호 공급
-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12만실)를 청년층(신혼 포함)에게 저렴하게 특별 공급

< 연차별 청년주택 공급 계획 >

구 분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합 계	4.4	4.9	5.1	5.3	5.3	25	5
청년 공공임대(호)	2.0	2.5	2.7	2.9	2.9	13	2.6
청년 공공지원(실)	2.4	2.4	2.4	2.4	2.4	12	2.4

< 청년주택 입주자격·임대료 비교 >

구 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대상가구	▪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득요건	▪ 본인소득 有 -평균소득의 80% 이하 ▪ 본인소득 無 -부모소득이 평균 이하	▪ 평균이하가구의 대학생·취준생	▪ 본인소득 有 -평균소득의 120% 이하 ▪ 본인소득 無 -부모소득이 120% 이하
임대료	▪ 시세의 70% 내외	▪ 시세 30~50%	▪ 시세 70~85%

□ 청년주거 금융지원 강화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준생 등 청년 대상 월세대출(우대형 年 1.5%) 지원한도를 30 → 40 만원으로 확대('18.1)
- 만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年 600만원 한도, 최고 연이율 3.3%) 신설('18.上)
-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34세)과 신규 창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저금리(年 1.2% ↔ 시중 年 3.2%) 융자 지원('18.3분기) ☞ '18.3 청년일자리대책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임차시 최대 3,500만원 대출

약속 3.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국토교통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인기업과의 매칭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공공과 함께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도 창출

가. 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학업과 취업의 연계강화

- (특성화高) 채용수요가 있는 건설사를 사전 모집 후 현장환경과 유사한 교내 실습장에서 기능장 파견 현장맞춤형 훈련 지원

* 실습장 조성·기능장 초빙 등을 지원하고, 훈련 종료 후 참여기업으로 취업 추진

- (마이스터高) 졸업생('19.2월, 140명) 채용예정 건설사를 사전 모집 후 학생과 매칭하여 해외건설 OJT 지원 및 학교-업체 간 협력 확대

* 취업지원관을 통해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채용설명회 개최, 모의면접 등 실시

- (해외경험 지원) 건설인재의 국제역량 함양을 지원(年 200명 수준)하여 해외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 취업 지원

- ODA 현장지원관, 해외인프라 협력센터(UAE, 인니, 페루), 공기업 해외현장 파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역량 계발을 지원

- (고용우수기업 우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설인재 고용 활성화

- 정규직 채용 확대 등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시공 능력평가 등 우대('19~)하고 컨설팅 바우처 지원('18.12~)도 추진

⇒ '22년까지 현장맞춤형 훈련 300명, 해외건설 현장훈련 1,000명 지원으로, 일자리 975개 창출 추진 (교육생의 75% 취업 목표)

나. 안전부문 일자리 창출

□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을 민간 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하여 안전성 제고 및 관련 시장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3종 시설물

- 「시특법」 개정('18.1 시행)으로 약 17만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공시설과 취약 민간시설 등 6.9만개가 3종 시설물*로 편입될 예정

* 「시특법」은 시설의 규모와 종류 별로 1·2·3종 시설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실시

- 3종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건설기술자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맡기도록 의무화하여 관련 기술자의 일자리 창출 유도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3종 시설물의 현황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기술자의 시장창출 지원

⇒ '22년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진단 부문 일자리 700개 창출

□ 건축물 화재·지진 안전강화 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공무원의 지진, 화재 등 기술적인 검토역량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

- 지자체 허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센터가 지원함으로써 부실설계·시공을 방지

⇒ '22년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최대 19개소* 설치, 일자리 40개 창출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전제로 ('18년) 7곳, ('19년) 5곳, ('20년) 6곳, ('21년 이후) 1곳 등 총 19개 지자체가 설치를 희망('17.12)

다.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

□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 부동산 관련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 * 미국 Zillow, 일본 Homes 등 부동산 기업은 공공 부동산정보의 공개에 따라 창출
 - 주택·오피스텔·산업용 등 유형별 실거래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 공개*('18.10)하여 부동산 정보업 등 창업 촉진
 - * 토지·단독주택 실거래 정보('18.6) → 아파트·오피스텔, 산업·공업용 건물 등 실거래 정보('18.10) 등 단계적인 정보공개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민간보유 정보공유도 추진
 - 창업경진대회('18.6)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기부 등의 창업프로그램 지원방안도 적극 협의
 - * 필요 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관련법령 개정 협의
- ⇒ '22년까지 15개 기업 집중지원, 일자리 45개 창출

□ 리츠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 리츠와 펀드의 겸업이 허용된 펀드운용사와 신규상품개발을 원하는 대형은행 대상으로 리츠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유도
 - * HDC자산운용(펀드운용사), 신한금융지주(은행권) 자산관리회사 최초 설립('17)
 - 연기금이 50% 이상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사전 영업등록 방식을 자산매입 이후 국토부에 사후신고로 완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사모리츠만 수탁·운용하는 AMC에 대해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70억→ 20억원)하여 신규 진입 활성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 '18년 중 4개 신규 AMC 인가를 추진하여 일자리 50개 창출

라. 항공 분야 일자리 창출

□ 항공기 조종사 先선평 後교육

- 조종사 취업 희망자를 항공사가 먼저 선발한 후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이수·자격취득시 정식 채용하는 ‘先선평 後교육’ 제도* 도입

* (항공사) 훈련생 선발(8개 항공사 年 200명) → (훈련기관) 훈련이수 및 자격 취득 → (8개 항공사) 최종 채용

- 훈련비용은 훈련생이 부담하되 서민층 등 희망자는 항공장학재단 (~'18.11 설립)에서 대출*(약 年 80명)

□ 수요 맞춤형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 항공기 추가도입(5년간 138대), 항공정비 해외의존도 감축 필요성* 등 감안, MRO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추진

* 항공사별 해외의존율(비용기준) : A社 23.8%, B社 73.8%, LCC 87.7%

- B737 등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LCC·MRO 등 정비업체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항공사별 정비인력 수급계획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바로 채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객실승무원 준비 인력의 해외취업 지원

- 국내취항 외항사(약 65개)와 협력하여 정확한 채용정보를 해외진출 통합정보망(산업인력공단)에 게재하는 등 객실승무원력* 해외진출 지원

* 매년 4,500명의 항공서비스 전공자가 배출되나, 국내 항공사 채용규모 연 1,500명 수준

□ 항공산업 전반의 일자리 정보 체계적 제공

- 항공산업 취업박람회*(’18.9)를 통해 항공사, 공항공사, 연구원 등 항공분야 일자리와 구직 청년 간 취업매칭 지원

* 항공포털내 항공일자리 채용정보 사이트 구축(~’18.7)해 취업정보 상시제공

⇒ ’22년까지 조종사 일자리 1천개, 항공정비 일자리 4천개, 승무원 해외일자리 600개 창출

마. 공공기관 채용 확대

□ 공공기관 새일자리

- (기존기관) 철도노선 개통 등 인프라 확대, 안전관리·갈등조정 등 공공서비스 개선 및 자율정원조정(한시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신설기관) 새만금 개발·관리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출범('18.9)
 - * 파견 등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되, 신규채용 인력은 청년 중심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안) >

부 문	기관명	'18년		'19~'22년
		상반기	하반기	
주택·토지	LH, LX 등 6개 기관	512	254	연 600명 수준
교통	도로·철도·항공 9개 기관	1,461	897	연 1,350명 수준
기타	건설·수자원·안전 등	383	230	연 400명 수준
계	27개 공공기관	2,356	1,381	연 2,400명 수준

※ '19년 이후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매년 결정

⇒ '22년까지 13,3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양질의 나눔일자리

- (시간선택제) 조사·점검·안내 등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신규채용 단계부터 시간선택제를 적용하여 추가채용여력 확보
 - * (LH) 주거급여현장조사 일 6시간 근무 적용 → '18.下 70명 신규채용
(철도공사) 승무사업소 사무지원 등에 일 4시간 근무 적용 → '18.下 50명 채용
- (탄력정원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을 활용하여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여 근로여건도 개선

⇒ '22년까지 일자리 나누기로 2,400개 수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

약속 4.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건설, 버스, 택배 업종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가.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 건설기능인 임금보장 강화

-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모든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 ('19~)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 도입

- 산업영향*을 감안, 사업경험이 풍부한 LH·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수자원공사 등의 현장에 대해 시범적용('18~'19, 매년 10개소) 후 확산

*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전면시행 시 연간 2조원 공사비 증가 예상

□ 경력우대·복지확대 등 직업희망 제시

- 건설기능인 대상으로 경력·자격·훈련정도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여 초급에서 마이스터 단계에 이르는 성장경로 제시 ('19)

* 건설사가 등급별 기능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건설업 등록 기준도 단계적 개정

- 건설기능인의 고용이 안정화되도록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정, ~'20)

- 건설현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최소근무일 20→8일, '18.下)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납입액과 대상공사도 지속적으로 확대 ('18~)

* (일 납입한도) 5천원→1만원, (대상) 공공 3→1억원 이상. 민간 100→50억원 이상

□ 건설기술자 근로여건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도한 경력·실적 기준을 현실화하여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 및 청년인력 채용
 - * 현재는 경력·실적이 많은 임원급 기술자 확보에 주력 →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젊은 기술자 이탈 지속 →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악순환
-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용역대가 현실화 방안 검토 추진

나. 버스운수업 근로여건 개선

□ 버스차량 안전장치 장착 확대

-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구입 시 비상자동제동 장치장착 비용 한시적 일부 재정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대당 500만원 중 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연간 약 1,400~1,700대
- 기존 버스차량 중 시외 운행 차량은 전방충돌경고·차로이탈경고 장치를 장착토록 하고, 재정지원 통해 조기장착 독려(~'19)
 - * 대당 50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40% 지원, 연간 약 2.5만대

□ 안전한 버스운행 환경 조성

- (휴식 보장)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 가중 처분(여객법 시행령 개정)
 - * 특정노선 영업정지 강화(최대 90일 → 1차 : 90일, 2차 : 감차명령) 및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 의무화(재량규정 → 강행규정)
- (시설 개선) 수도권 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장시간 운행버스 관련 휴게시설 확충, 도로환경 개선 등 운전자 안전·편의 제고
 - 전방 장애물, 정체·사고 등 교통안전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하이웨이(C-ITS) 서비스 조속 추진(~'20)

다. 택배운송업 근로여건 개선

□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

- 급증하는 택배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택배차량을 확보토록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허가 추진**(’18~, 연간 5,300대 수준)
 - * 국내 택배 물동량은 ‘11년 13억개에서 ’17년 23억개로 증가, 택배기사는 일평균 200개 수하물을 배송 → 4분에 1개 배달 시 휴식 없이 13시간 소요
- 1인당 일 최대 배송량 설정 등 **택배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20) **택배업 종사자의 소득향상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

□ 근로환경 개선

- 택배차량 주·정차 편의 향상, 택배업 종사자의 노동강도 저감 기술* 개발 등 근로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
 - * (R&D) 택배터미널 상·하차 자동화 기기(’18~’22), 적재함 최적화 기술(’19~’22)

⇒ ’22년까지 택배운송 일자리 12,500개 창출

라.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서비스 향상과 정규직 고용 확산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기에 완료
- 기 발표된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국토교통 공공부문 비정규직 4.3만명(총 근로자 10.3만명의 41.4%) 중 **2.9만명(71.7%) 정규직 전환**
 - * 파견·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전환결정 기준) >

총 전환대상	’17년 전환결정	’18년 전환결정	’19년 전환결정
29,098명 (전 환 률)	18,347명 (63.1%)	10,713명 (99.9%)	38명 (100.0%)

약속 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新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가. 스마트시티

□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내 스타트업 활성화

- (창업지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제도, 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스타트업*들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 (사례, 이큐브랩) 스마트 쓰레기처리 솔루션을 39개국 72개 도시 수출('17)

- 도시 관련 벤처육성·컨설팅·투자 등을 시행하는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상용화 지원) 수요기관이 기술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관의 니즈와 개발자의 기술력을 융합하는 개발체계 도입 방안 검토
- 혁신제품과 솔루션이 지속 개발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적정 가격을 지불하여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매 혁신방안도 검토

□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 (교육과정) 기존 석·박사 양성 중심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전환 ('18.12, 제3차 인력양성계획 마련)
- 스마트도시 운영·관리, 도시계획 등 산업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지망생 대상의 인큐베이팅 교육과정도 운영
- (자격제도) 스마트시티 자격제도를 개선(민간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하고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인재의 유입 촉진

* 스마트도시센터 취업가점, 관련 업체 등록 시 필수확보 자격에 포함 등

⇒ '22년까지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4,000명 양성, 일자리 3,000개 창출

나. 드론

□ 속도감 있는 드론 상용화 추진

- (공공선도 상용화) 공공부문*부터 드론 상용화를 선도하여,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검증하고 민간시장 확대를 효과적으로 촉진

* 공공부문 수요조사('17.9) : 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4,000여대 활용 전망(~'21년)

- 공공기관 등이 재해·안전업무에 드론 활용시 비행규제를 배제하는 긴급 드론 운영 특례기관 확대('18.3, 입법예고)

< 공공부문 드론 활용 사례 >



문화재 점검



재해·재난 대응



정밀지도 작성 및 측량

- (규제혁신) 특별비행승인 우선 적용, 기술컨설팅 등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조기상용화를 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18.5~)

- 업계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등에 시험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7개*인 시범구역 확대 추진('18.5, 지정 예정)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부산

□ 자격제도 정비 등 산업인프라 확충

- (자격취득 여건 개선) 다양한 드론의 기종과 용도에 따라 자격취득 방법을 차별화하고, 상시 자격시험장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

* 위험도·성능 중심의 드론 분류체계 및 자격·교육체계 세분화 방안 마련('18.9)

- (전문교육기관 확대) 항공대학교, 육군정보학교, 민간드론업체 등 33곳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22년까지 드론 신규자격 취득자 5,000명 배출 유도,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4,500개 창출

다. 자율주행차

□ 산업성장 기반조성

- (기술개발 기반 마련)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 K-City 완공('18), 대규모 데이터 축적·활용을 위한 공유센터 구축('18) 등 R&D 여건 마련

* 현재 현대차·서울대·삼성전자·네이버·SKT 등 자율차 45대 임시운행허가

- (스마트인프라 구축) 스마트도로*·정밀도로지도·정밀GPS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스마트인프라를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도심에 구축추진

* 센서 한계 극복을 위해 차량과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정보를 공유하는 도로인프라

- 스마트도로는 수도권고속도로 및 서울·제주부터 시범구축('18~'20) 하고, 정밀도로지도는 '20년 고속도로 등 조기구축(1,351km 완료) 추진

□ 상용화 지원 및 인재양성

- (시범운영) 평창올림픽 시연, 서울 도심 체험행사 등 자율차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 R&D로 카셰어링('18), 군집주행 트럭('19), 미니버스('20), 중대형버스('21) 등 실증

- 특히 자율주행버스는 판교·인천공항부터 여객운송 시범운행 추진

- (제도 정비) 자율차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 자율주행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제도 등 실제 자율차 상용화(판매)를 위한 제도 마련(~'19)

* 주행안전(자동조향 등), 사이버보안(해킹대응), 제어권 전환(차량→사람)등

- (협의회 운영) 인프라 연계산업 발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운영('18.3~)

* 통신·부품·인프라 등 대중소기업·벤처기업 100여개 기관 400여명이 참여

- (인재양성) 자율주행 교육훈련 전담기관(ITS협회) 등을 통해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22년까지 자율차인프라 전문인력 3,000명 양성, 일자리 2,250개 창출

라. 제로에너지 건축

- 제로에너지건축의 단계적 의무화('20년 공공, '25년 민간)를 통해 녹색 건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발전 기틀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22년까지 약 1,000건으로 확대('18년 30건)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17년 160명 → '18년 400명)
 - 또한 맞춤형 취업 상담, 채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 녹색건축센터* 등에 취업 연계 지속 추진
- * 녹색건축센터 :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 '22년까지 제로에너지 전문인력 2,000명 양성, 일자리 1,500개 창출

마. 신교통·물류 서비스

- 교통 O2O 서비스
 - 카셰어링 등 교통 O2O*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 확산
 - * (교통 O2O) 기존 교통수단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ICT 기반 플랫폼(카카오택시 등)
 - 혁신도시 등 철도역 배후도시의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도심과 철도역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O2O 서비스* 시범 도입
 - * 카셰어링, 승합렌터카 중개 서비스, 사전예약기반 수요응답형 버스 등
 - 생활물류 스타트업* 육성
 - * 배달대행 등 O2O서비스부터 IoT 등 기술형 창업까지 적극 확산 중

(O2O) 배달의민족(음식배달), 그린바스켓(세탁물수거), 짐카(원룸이사) 등
(기술개발) 메쉬코리아(물류솔루션+이륜차운송), 라이엇(IoT, 온도검증 전자태그)

 - 민간 투자협의회*와 협력하여 생활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 * 타임와이즈, 인라이트벤처스 등 벤처캐피털이 조성한 투자펀드 453억원 규모
- ⇒ '22년까지 신교통·물류 관련 20개 창업기업 지원, 60개 일자리 창출

V. 이행방안

1. 추진기반 마련 및 실효성 제고

□ 효과적인 추진체계 확립

- (점검체계) 부처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등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 **확인·보완** 추진

* 로드맵 성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지표(통계) 개발 추진('18.5~)

- (환류체계) 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창업가 등으로 **청년배심원단**을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등 **수요자 중심 환류체계** 구축

- 창업공간의 사업자 유치,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마련 등 국토교통 정책의 지속성을 집중 **확인·보완***하여 로드맵의 실효성 확보

*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공유하고 후속 지원책 발굴

□ 협업 및 소통 확대

- (협업 강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업

- 특히,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 기존 **고용보험사업**(고용부)과 **창업 지원사업**(중기벤처부)을 로드맵의 일자리 대책과 적극 연계 추진

- (국민 소통)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 일자리정책 추진기반 구축

- (정보제공) 주택·건설·교통 등 부문별로 제공하는 창업·취업 지원 대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국토교통 일자리 정보 포털** 구축

* 일자리 정책, 창업공간 지원(담당기관, 연락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일괄 제공

- (전문기관) LH, 건설기술연구원 등 일자리 창출 역할이 큰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담TF**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

* 국토교통 일자리 정보 포털과 연계하여 창업·구직자 컨설팅, 매칭 등 지원

2.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계획

분야		추진 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I.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						
약속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①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후보지 발굴	공급준비	'22년까지 3천 호 공급		
②	공공임대 희망상가	110호 공급	80호 공급	80호 공급	80호 공급	80호 공급
③	어울림플랫폼 공공임대상가	플랫폼 20곳 임대상가 20곳	매년 어울림플랫폼 20곳, 임대상가 20곳 조성			
④	도시재생 첨단 창업지원센터	지침 개정 센터 1곳	센터 2곳	센터 3곳	센터 4곳	센터 5곳
⑤	지역공헌센터 청년몰	창업공간 4곳	매년 창업공간 4곳 조성			
⑥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실시설계 착수	시설공사 착공	동탄2 개소	-	-
⑦	공간정보 스타트업	서울센터 확대	세종센터 신설	전주센터 신설	전국 확대	전국 확대
⑧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	기본·실시설계	착공	구축	개방
⑨	건설 新기술 스타트업	창업허브 설립 방안 마련	건진법 개정	-	-	-
⑩	물산업 스타트업	창업공간 확보(2개)	기존 창업공간 리모델링 (연구소, 본사)	유희시설 활용 창업공간 확충 (판교)	-	-
⑪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8개 28명	22년까지 33개 매장 117명			
⑫	졸음쉼터 푸드트럭	5대 12명	22년까지 32대 73명			
⑬	철도·공항 매장 지원	4개 매장	4개 매장	4개 매장	5개 매장	5개 매장

분야		추진 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약속2. 우리의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양성	도시재생대학 50개	도시재생대학 50개	도시재생대학 40개	도시재생대학 30개	도시재생대학 30개
②	도시재생 창업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0개	매년 예비사회적기업 50개 지정			
③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터 새로이 20곳 재생사업 50곳 협동조합 20곳	매년 터 새로이 20곳, 소규모 재생사업 50곳, 협동조합 20곳			
④	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사업지구 선정	착공	-	기업입주	-
⑤	물류단지	-	-	4개소(97만㎡) 준공	-	준공(무등, 27만㎡) 사업착수(양천)
⑥	혁신도시 지역청년채용	지역인재 채용 18%	지역인재 채용 21%	지역인재 채용 24%	지역인재 채용 27%	지역인재 채용 30%
⑦	혁신도시 발전재단	고시 개정	2개소 출범	1개소 출범	3개소 출범	4개소 출범
⑧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어린이집 신설, 종합병원 유치 (진주)	어린이집 신설, 종합병원 유치 (원주, 대구, 나주)	종합병원 유치 (제주)	-	-
⑨	새만금 산단	새만금특별법 개정	국가산단 전환	기업유치	기업유치	기업유치
⑩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	4차분양	5차분양, 산학연센터준공	6차분양	자식산업센터 준공	집적센터 준공
⑪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모집공고 등	주거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			
⑫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 착공 100호 입주(나주)	사업 준공, 입주 (토지임대부 시범사업)	490호 입주 (협동조합형)	540호 입주 (협동조합형)	-
⑬	주거지원대상 복지지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속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추진			
⑭	청년 주거지원	(공급확대) 4.4만호 대출확대 청약신설 임차보증금 지원	(공급확대) 4.9만호	(공급확대) 5.1만실	(공급확대) 5.3만실	(공급확대) 5.3만실

분야		추진 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II.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3.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도 지원						
①	건설 특성화고	-	'22년까지 300명			
②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국토부-공기업 MOU 체결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해외 인턴십 지원		
③	소규모시설 물 안전관리 강화	관리자 교육실시	-	-	-	-
④	지역건축안전 센터 확산	하위규정 마련	'22년까지 최대 19개소 설치추진			
⑤	부동산서비스 산업 활성화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22년까지 분기별 BSI 공표, 창업경진대회 추진			
⑥	리츠 규모 확대	AMC 신규인가 (4개사)	'22년까지 AMC 신규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⑦	항공조종사 先선발後교육	훈련생 200명	매년 훈련생 200명 先선발 後교육			
⑧	항공정비인력 양성·취업	정비인력 741명 MFO 법인 설립	정비인력 536명	정비인력 804명	정비인력 927명	정비인력 1,002명
⑨	항공분야 취업지원	'22년까지 협의체운영,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추진				
⑩	공공기관 새일자리	3,737명 채용	연 평균 2,400명 채용 * 구체적인 채용규모는 매년 정부협의 통해 결정			
⑪	공공기관 나눔일자리	557명 채용	연 평균 500명 채용			
약속4.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						
①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	전자대금지급확대 PQ기준 개정	기능인등급제 등급체계 마련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제도화		
②	버스운행 안전성 제고	안전장치 재정지원	안전장치 재정지원	C-ITS 서비스	-	-
③	택배근로여건 개선	하역장비 니즈 분석·설계	'22년까지 택배업 종사자 노동강도 저감기술* 개발 * 컨베이어 기술, 택배화물 고속자동정렬장치, 허브센터 반자동 하역 장비, 적재함 최적화 차량			
④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10,001명 전환	5,923명 전환	6,673명 전환		

분야		추진 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Ⅲ. 신산업 육성						
약속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를 육성						
①	스마트시티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 개최	스 마 트 시 티 자격제도 개선	인큐베이팅 센터(동탄2) 개소	-	전문인력 4,000명 양성
②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추진	드론 조종자격 교육·시험 개선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장 구축	도시재생 연계 기업지원허브 추가 구축	
③	자율주행차	K-City 완공 실증사업 추진	'22년까지 실증사업 확대, 주요도로 스마트화(계속), 인재양성 추진			
④	제로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 전문교육 확대	'22년까지 전문교육 지속 추진, 제로에너지 잡페어 개최추진			
⑤	O2O서비스	수요응답형 시범도입	'22년까지 O2O서비스 도입 확대 및 시범사업 확산			
⑥	생활물류 스타트업 육성	창업아카데미, 아이디어 공모전	'22년까지 보육지원, 공모전, 투자연계 지원추진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가지 약속

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거 인프라	공공 플랫폼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 소호형 주거 3,000호 - 희망성가 460호	- LH ... 스마트시티 - LX ... 공간정보 - 수공 ... 물산업	- 출입센터 푸드트럭 - 휴게소 청년매장 - 철도역 청년매장

2. 우리의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



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4. 낙후된 근로여건 개선

건설	교통물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기능인등급제로 경력관리 - 적정임금제 등 처우개선	- 안전한 버스운행환경 조성 - 택배차량 年 5천대 신규허가 - 택배 근로환경 개선
항공	공공기관
- 조종사 先 선발 後 교육 *연 200명 - 정비인력 4,000명 양성 - 승무원 외항사 취업 지원	- 신규채용 13,200명 - 일자리 나누기 2,400개 - 정규직 전환 29,000명

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 육성



참고2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과제별 기대효과('18~'22)

추진 과제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비 고
계		4,720	95,940	32,800	
I.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					
약속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①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	5,000	-	
②	공공임대 희망상가	430	1,290	-	
③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임대상가	200	2,900	-	
④	도시재생 첨단혁신성장센터	15	300	-	
⑤	지역공헌센터, 전통시장 청년몰	20	600	-	
⑥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200	600	-	
⑦	공간드림센터	50	150	-	
⑧	자율차 창업창고	15	45	-	
⑨	건기연 창업지원허브	150	450	-	
⑩	K-water 스타트업허브	140	420	-	
⑪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41	145	-	
⑫	줄음쉼터 푸드트럭	37	85	-	
⑬	철도역사·공항 매장 지원	22	60	-	
약속2. 우리의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양성	-	1,200	12,500	* 지원센터 300개
②	도시재생 창업지원(예비사회적기업)	-	1,250	-	* 예비사회적기업 250개
③	도시재생 일자리창출(터새로이 등)	-	2,100	-	* 터새로이 100 소규모재생 250 협동조합 100
④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	9,337	-	
⑤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	20	-	
⑥	주거지원대상 자립지원	-	-	-	여건조성
⑦	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300	1,800	-	
⑧	물류단지	-	7,625	-	* 물류단지 125만㎡ 조성
⑨	혁신도시 지역청년채용	-	7,520	-	* 국토부 공공기관 880명 제외(중복)
⑩	혁신도시 발전재단	100	600	-	
⑪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	2,000	-	
⑫	새만금 개발	-	-	-	
⑬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	-	3,520	-	* 총 57개 기업 입주 예정
⑭	청년주거지원	-	-	-	여건조성

추진 과제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비 고
II.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3.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도 지원					
①	건설특성화고	-	225	300	
②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	750	1,000	
③	소규모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700	-	
④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	40	-	
⑤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	45	-	
⑥	리츠 규모 확대	-	50	-	
⑦	항공조종사 先선발後교육	-	1,000	1,000	* 先선발 인원대비 80% 이상 취업
⑧	항공정비인력 양성·취업	-	4,000	4,000	* 취업률 100% 목표
⑨	항공승무원 해외취업지원	-	600	-	
⑩	공공기관 새일자리	-	13,300	-	* 이전공공기관 880명 포함
⑪	공공기관 나눔일자리	-	2,400	-	
약속4.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					
①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	-	-	-	여건개선
②	버스운행 안전성 제고	-	-	-	여건개선
③	택배근로여건 개선	-	12,500	-	* 신규 26,500대 중 자비용 14,000 제외
④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	-	-	여건개선
III. 신산업 육성					
약속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를 육성					
①	스마트시티	-	3,000	4,000	
②	드론	-	4,500	5,000	
③	자율주행차	-	2,250	3,000	
④	제로에너지	-	1,500	2,000	
⑤	신교통·물류서비스	-	60	-	* 20개 창업지원